



NH투자증권

업계 첫 로보 자문상품 출시

NH투자증권은 10일 업계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개인연금 자문상품인 'NH로보연금 자문형'을 출시했다. 이는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2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연금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다.

NH로보연금 자문형은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신경쓰기 어려운 개인 연금 계좌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상품으로, 연금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장기 투자상품의 특성상 매년 연 1%만 차이가 발생해도 경과기간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매우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연금 상품은 흔히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다. 이렇게 방치되기 쉬운 연금 계좌를 로보가 시장 변동에 따라 펀드의 매수, 매도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고객은 연금 자산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비대면 투자미식회' 개최

KB증권은 전국의 면 맛집에서 진행되는 이색 투자 설명회인 '비대면 투자미식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비대면 투자미식회'는 KB증권이 추진하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5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주간 진행한다.

KB증권의 비대면 계좌개설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은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신청 가능하다. 매주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여 명의 고객들을 전국의 유명한 면 맛집으로 초청해 맛집 탐방은 물론 KB증권의 디지털 금융 전문가들의 금융시황·해외주식·종목상담 등 실속 있는 투자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DB금융투자

'시중금리+α' 전단채 랩 모집

DB금융투자는 18일까지 투자기간이 짧은 전자단기사채 펀드에 투자해 '시중금리+α'의 수익을 추구하는 'DB 전단채 랩(Wrap)'을 모집한다. 'DB 전단채 Wrap'은 전자단기사채, (AB)CP 포트폴리오 투자로 분산효과와 안정성을 높인 랩 상품으로 약 3개월 단위로 단기투자가 가능하고 시중금리를 상회하는 수익을 추구한다.

작년 말 판매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가입고객도 매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 상품은 기존 Wrap 상품에 비해 최저 가입금액이 낮아 1000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지배구조 'A+' 지주사 마무리·정기선 승계 '착착'

(학점)

(정몽준 이사장 장남)

2018 기업 지배구조 개편

③ 현대중공업

정몽준의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를 완성했다. 정 이사장→현대로보틱스(지주회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현대오일뱅크·현대글로벌 서비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 이사장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장남 정기선 부사장의 후계 작업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02년 현대중공업 고문을 끝으로 경영에서는 물러나 있다.

◆현대중공업, 지주사 전환... 정 회장 지배구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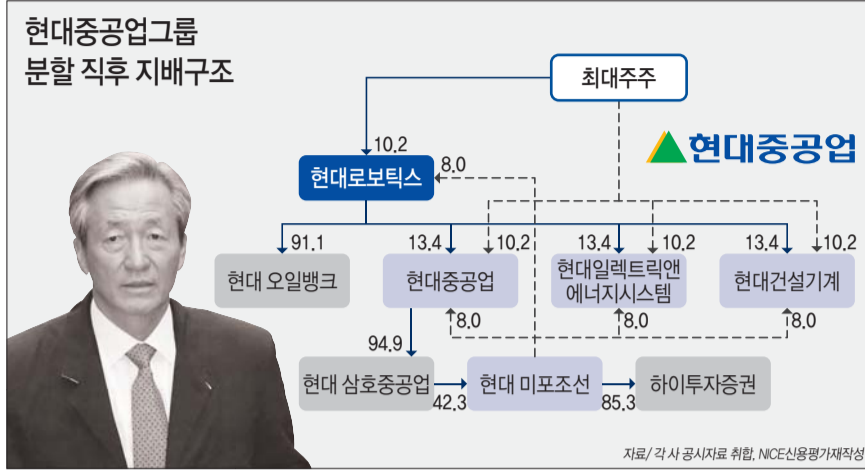
"현대중공업그룹이 주주와 시장의 기대 속에 사업 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지 1년이 됐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지주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고히 하고, (그룹) 각사가 책임경영과 독립경영을 실천하면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3월 30일 권오갑 부회장)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2016년 11월 현대중공업그룹은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는 지주회사 현대로보틱스의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4월 현대로보틱스와 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 등 신규 법인들이 설립됐다.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설립요건 충족, 현물출자 유상증자 완료, 금융회사(하이투자증권) 매각 발표 등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차레로 진행해 왔다.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는 물론 독립경영체제 확립과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딛



체제 전환·재무 안정성 제고 힘써 무차입 경영·R&D 적극 투자 장기적 측면에서의 승계 준비

각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신설 법인들은 분할 후 흑자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완의 단계다.

올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마무리와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현대오일뱅크 기업공개(IPO)를 통해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1조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무차입' 경영을 하는 한편 연구개발(R&D) 부문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14년 이후 진행해온 고강도 경영개선(구조조정) 계획의 마무리 절차다.

한국기업평가 성태경 책임연구원은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고 투자 및 계열사 관리를 전담하는 지주회사 체계가 구축되어 지배구조도 투명해졌다"면서 "추가적으로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

에 관한 지분을 규제와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년의 유예기간 중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룹미래 관건은 체질 개선

시장 안팎에서는 체질 개선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가 일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982년 현대중공업 사장, 1987년 회장을 거쳤지만 2001년 고문으로 물러난 후 지금까지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있다. 이후 최대주주 자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와 국제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변화도 있다.

지나해 11월 현대중공업 그룹은 정몽준 대주주의 장남인 정기선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계열사인 현대글로벌 서비스대표이사로 앉았다. 정 전무는 2년 만에 부사장 승진과 함께 선박 애프터서비스업체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까지 맡아 본격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선다.

그가 위기에 놓인 현대중공업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놓느냐가 경영승계의 명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를 위해 개국 공신인 최길선 회장이 자문역으로 내려와 길을 터줬다. 권오갑 부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에 오

르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벌였다.

정 부사장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다. 지난 2015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진두지휘하며 잠재력을 보여줬다. 현대중공업과 사우디의 전략적 협력은 정 부사장의 끈질기고 치밀한 준비에 의해 성사됐다. 지난 2016년 3월 알 팔리(Al Falih) 당시 아랍코 사장, 4월 알 나이미(Al Naimi) 사우디 석유장관이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을 때 직접 영전에 나선 인물이 정 부사장이었다. 그는 영접 직후 사우디 협력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사우디를 차례 방문하며 실무협상을 지휘했다. 같은해 6월엔 현대중공업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 선주사를 직접 환대한 바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립연방대학교에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Rosneft)사와 협력합의서에 서명한 것도 정 부사장이 중점 추진했던 해외 네트워크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계동 현대빌딩에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사장과 함께 유항열 한국전력 부사장과 만나 해외 페트록 발전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페트록 사업에 대한 3시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정기선 전무로의 경영 승계 준비로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현대중공업 지주 지분 5.1%를 확보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 부사장의 나이가 아직 30대에 불과해 승계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국내 주요 그룹들이 승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승계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분양시장 고급아파트 대세... '이왕이면 다홍치마'

건설사, 차별화된 고급단지 분양 특별함 추구하며 수요자 인기 끌여

건설사들이 고급아파트를 선보이며 수요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다양한 설계와 차별화된 자재로 갖는 고급아파트는 수요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KB부동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는 30~31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있고 고급호텔을 방불케하는 외관이 돋보이는 단지다. 3.3㎡당 평균 매매가는 7079만원으로 반포동 평균(5330만원)보다 무려 1749만원 이상 높았다.

가격 상승률도 일반 단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에 위치한 '길음뉴타운(8단지 래미안)' 84㎡의 현재 시세는 6억5000만원으로 1년 전인 2017년 4월 기준 매매가(4억8500만원)보다 24.74% 올랐다. 같은 기간 성북구 아파트 평균 상승률 6.16%를

(주택 고급화 전략으로 공급되는 연내 주요 분양단지)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일반공급	전용면적(㎡)	분양시기
경기 과천시 길현동	과천 센트레빌	100	57	84~176	5월
경기 용인시 동백동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1,187	1,187	69~84	5월
인천 남구 도화지구	인천도화 금강컨테리움 센트럴파크	479	479	59~84	5월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	917	917	96~159	5월

*분양 개요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각사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서초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일반 단지와 차별화된 고급 단지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별함을 추구하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개인의 취향과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고급화 단지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고급화'에 주력한 단지들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우선 동부건설은 5월에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39번지 일대에 과천12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센트레빌'을 선보인다. 지상 최고 15층, 3개 동, 전용면

적 84~176㎡, 총 100가구 중 5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고급 마감재를 이용해 안전성을 높였고, 기존 아파트보다 10cm 높은 2.4m의 천정고에 거실에는 우물천정을 설계해 2.5m까지 천정고를 높여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최상층 가구에는 복층형 설계를 도입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자연친화적인 테마공원 등 커뮤니티 시설과 고품격 로비 공간, 유럽형 감성을 담은 부띠끄형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산건설도 이달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19-19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0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1187가구 규모다. 두산건설의 고급 주거 브랜드 '더제니스'로 공급되는 단지다. 전 세대 4-베이(bay), 알파룸 및 펜트리 등 주거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혁신평면'으로 설계된다. 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 키즈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금강주택은 5월 중 인천 남구 도화지구 2-3블록에 공급하는 '인천도화 금강컨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 총 4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남향 위주의 4bay 판상형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기존 아파트보다 10cm 높은 2.4m의 천정고에 거실에는 우물천정을 설계해 2.5m까지 천정고를 높여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각 동 최상층에는 복층형 다락을 설계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정연우 기자 yw064@